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5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4. 다 나와 찬송드리세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흰 이슬로 내리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가을 옷을 꺼내 거풍하듯이, 추한 욕심과 정욕으로 녹진녹진해진 우리 영혼을 주님의 숨결 앞에 내놓습니다. 은혜의 바람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세파에 부대끼며 거칠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새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숨결에 따라 춤추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그릇된 신앙이 주님을 또 다시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는 참 사람이 되게 하여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내다보며 오늘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고후4:6 인도자

♠ 교 독 문 24. 시편100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김민주 선생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62.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함께

성경봉독 I. 막15:24-32 인도자

II. 요20:24-29 박흥재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영웅을 포기하라 김재흥 목사

II. 회의를 거친 신앙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현신의 찬송 344.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다함께
- 헌금봉헌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신앙의 어둔 밤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귀로 들을 수 없어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절망을 희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불신을 신뢰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일인극/ “在日三代史”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송부자 장로(고려박물관 관장)	기도 : 김현영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권미정 집사 구성실 장로	인도자 조문규 집사

9월	영접위원	한완식	하현철	조문규	강순배	최성해	진정숙
	헌금위원	조병무	김중수	김정길	송양진	허정윤	이순정

기도는 생명의 알짬이다

기도는 종교의 영혼이요 알짬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생명에 있어서도 알속임에 틀림없다. 아무도 종교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의 자만으로 자신은 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코 없이 숨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든, 본능에 의해서든, 혹은 미신에 의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의 사귀를 경험한다.

기도는 우리 생명의 알속이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것(祈願), 혹은 넓은 의미에서 신과 내적 교감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둘 다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소원을 비는 기도일 경우에도 그 기도는 영혼의 씻음과 정화를 위한 것이고 무지와 어둠의 장막에서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자 갈망하는 자는 기도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는 혀와 귀의 장난도 아니거니와 공허한 기도문의 반복도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아무리 되새긴다 해도, 영혼을 일깨우지 못한다면 죄다 헛된 일이다. 마음 없는 말(words without a heart) 보다는 말없는 마음(a heart without words)으로 드리는 기도가 훨씬 낫다. 굶주린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참된 양식이 바로 기도다. 배고픈 사람이 정성이 담긴 음식에 만족하듯, 굶주린 영혼은 진심에서 우러난 기도를 맞보기 원한다. 기도 없는 내면의 평화란 없다.

우리는 남자건 여자건 같은 인간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태어났다. 하지만 웅글게 깨어 있지 않으면 온전히 그리할 수 없다. 인간의 가슴속에서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끝없이 싸움을 벌인다. 의지할 수 있는 기도의 닦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세력의 희생물이 되기 쉽다.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온 세상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기도하는 마음 없이 세상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스스로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마저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가 인간의 사후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제쳐두고라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는 이루 해야 할 수 없이 커다란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우

리의 일상 생활에 질서와 평화, 안식을 가져오는 유일한 수단은 기도뿐이다.

그러므로 기도로 그대의 하루를 시작하라.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저녁까지 그대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그러면 꿈과 악몽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밤을 보낼 것이다. 기도의 형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염려하지 말라. 신과의 사귄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형식의 기도라도 상관없다.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게 하라.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삶의 임무로 삼고 있는 사람일진대, 스스로 일정한 훈련에 임하지 않는다면 쉬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런 까닭에 기도는 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다. 기도는 인간을 짐승과 구별시켜 주는 훈련이며 극기(restraint)의 과정이다. 네발로 걷지 않고 직립 보행하는 인간이 되길 원한다면 훈련과 극기의 참뜻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간디)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딱 하나의 기도는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기도를 양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짐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번덕이 이끄는 데로 가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중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살아있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말고,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죽음과 삶을 한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이것이 이상이다. 거기에 도달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며, 우리 중 단 몇 사람만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그 길을 가야 한다.(간디)

■ 마/음/으/조/워/는/글

싸 음

외과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지는 것은
치료 후 봉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기만 하고
봉합할 줄 모르면 환자는 죽습니다.

상추에 밥을 싸먹는 것을 쌈이라 합니다.
싸움을 줄인 말도 쌈이라고 합니다.
싸움은 싸이기 위한 분석·융합과정입니다.
싸이지 못하면 서로의 삶은 죽고 맙니다.

우린 서로 신뢰한다.
우린 서로 사랑한다.
우린 헤어지지 않는 다란
바탕 위에서 해야 싸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서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박해조, <<제목 없는 책>>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재흥 최희우 장우영 영순성 수덕수 양재성 권미숙 권호천 배상순 김필순 손배훈 김근모 종현옥
 정옥규 이영석 이인섭 홍순복 김순성 박우성 김지호 권최박정 권기서 천영우 배성운 손환정 오진호 노순

월정헌금:

권미정 김명순 배부례 송의섭 권순윤 윤정화 하정석 이명희 정두리
 정현창 김미주 김민준 오복순 이소은 박찬정 하이봉 문금석 정미경
 고재중 윤원 최윤선 류건형 이은자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이형석 한지혜 장미란 유경순 권미숙 김태환 곽권희
 오광자 이인섭 송동준 김진경 무명2

캄보디아우물헌금: 고요한 김인걸 노순옥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김준우 장영숙 송임희 임창선 정완수 김재광 윤성종 김윤정
 (누계: 93,200,000원)

◇ 속회 보고 ◇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장혜숙	섬	장혜숙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정복순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선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문금석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춘려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최종원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혜권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박미영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교회연합주일** : 오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몸임을 고백하고, 연합과 일치와 꿈을 재확인하는 주일입니다.
2. **증언** : 오늘 오후 집회는 일본의 고려박물관 관장이신 송부자 장로님께서 <재일삼대사(在日三代史)>라는 제목의 일인극을 통해 차별이 없고 약한 이가 존중받는 평화 세상의 꿈을 나누어드립니다.
3. **환경세미나** : 서울연회 환경위원회가 주관하는 환경회복 세미나가 9월 13일(목) 오전 10시부터 아현교회에서 열립니다.
4. **성서학당** : 13일(목)부터 시작합니다. 오전반은 10시 30분부터, 저녁반은 7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5. **수해현금전달** : 지난주에 수해를 만난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드린 현금 3백 5십만원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 잘 전달했습니다.
6. **결혼** : 윤여민(윤석철/장혜숙 장남)씨와 임보람(임승동/백혜숙 장녀)씨가 15일(토) 오후 3시에 교회 대예배실에서 결혼예식을 올립니다. 축하합니다.

* 식당 봉사 : 가버나움 속

토요봉사(15일): 이은옥 이소순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유영남(생일) 김철수(생일) 한준혜(생일) 권혁순(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